

데님 대학 강의록 - 쪽의 유전자

제 2부 : 세계의 이목을 끈 일본의 진즈(Jeans) <1/2>

다음은 데님 대학의 제 2부로서 에드윈 상사의 고바야시(小林) 전무에 의한 ‘세계의 이목을 끈 일본의 진즈’이다. 특히 ‘씻는 가공’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국이 매각한 중고 진즈를 씻어서 팔아

일본의 ‘워싱(washing) 가공’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다. 다음은 “어떻게 일본의 씻는 가공이 발전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강의한 내용이다.

일본에 진즈가 들어온 것은 1940년대에 미군이 매각한 의류 제품에서부터였다. 그 당시 일본은 의류 제품이 매우 부족하여 정말로 입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런 속에서 미국이 매각한 의류 속에 진즈가 들어 있었는데 중고품이므로 이것을 씻어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진즈는 씻어 입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생겼다. 일본에서 워싱 가공이 발전한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진즈가 처음으로 판매된 것은 1960년대이다. 그때까지 일부에서는 수입 생지를 사용하여 진즈를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보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처음으로 만든 진즈도 생지는 남미제로서 탕기우스 면(Tanguis cotton)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뽀뽀하고 굵은 생지로 15 온스(ounce) 정도였다. 그 당시 1 달러가 360 엔의 시대였으며 데님은 매우 비쌌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양도 적어 일본은 B급(품질이 A급만 못한 직물)이나 자투리급을 사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정말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일본에서 생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60년대에 일본에서 생산한 생지로 진즈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생지에는 아직 샌포라이즈 가공(sanforize 加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하면 허리(waist) 부위에서 5cm 정도 줄었고, 스큐(斜行) 방지 가공도 없었다. 지금도 전에 만들어 본 경험을 살려 진즈를 만들어 보려고 사행 방지 가공을 하지 않은 데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님으로는 옷자락에서부터 웨이스트, 포켓까지 모두 틀어지므로 매우 입기 어려운 진즈가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패턴 단계에서 생지가 틀어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미리 틀어지게 만들어 워싱 가공으로 되돌리도록 하였다. 허리 부위가 축소하는 것도 미리 패턴에서 크게 만들어 역시 씻어서 사이즈를 맞추고 있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퍼커링(puckering : 봉제 때 봉사의 장력이나 원단의 물성 차이로 생기는 솔기 부분의 주름)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생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며, 방적 등과 함께 개발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

◎ 스톤 워시기 개발에 성공

진즈는 씻음으로써 색이 좀 빠지므로 부드럽게 된다. 또한 크기가 줄어 피트감도 좀 생긴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려서 입었던 것은 진즈의 중고품이었다. 진즈의 중고품은 더 이상 줄지 않았으며 부드러웠다. 패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특징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이 한 것이 수세미와 부석(浮石 : 輕石)을 가지고 진즈를 입은 채 목욕탕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세미나 부석으로 적당한 곳을 막 비벼 색을 벗겨내서 자기만의 진즈를 만들었다. 그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담아, TV의 CM(commercial message : 선전, 광고)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납아빠진 느낌을 주는 진즈를 만들어 낼 수 없을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최초에는 전기 드릴(電氣 drill)의 끝에 종이나 수세미 따위를 붙여 진즈를 비벼 중고품의 맛이 나게 만들었다. 이 진즈는 새 상품이지만 중고품 같다는 데에 주목을 받았다. 그래도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하였지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진즈를 만들어 보자고 개발된 것이 스톤-워시기(stone-wash m/c)이다.

그토록 여러 시행착오를 하였는데 돌로 씻는다는 발상은 부석으로 문지른 경험과 원래 ‘문질러 벗긴다.’는 작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힌 결과였다. 예를 든다면 철골의 녹을 떨어뜨리는 데에 에어(air)로 철분을 세게 뿌려 녹을 깎아낸다. 블라스트(blast : 突風) 가공 방법이다. 또 하나는 금속 가공에서 테두리를 다듬는 공정이 있다. 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와 같은 통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자른 금속 부품과 돌을 함께 넣고 돌리면 금속의 절단면의 위험한 곳을 둥글게 깎는다. 이것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스톤 워시기

이다.

그런데 보통의 등근 기계를 만들었더니 진즈가 통 속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금속편이나 돌과 서로 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 속에 날개를 달았는데, 이는 진즈를 위로 날렸다가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치이다. 이 날개를 1장짜리부터 6장짜리까지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3장짜리와 4장짜리로 윤곽이 잡혔다. 이 기계로 진즈 20 ~ 30장을 넣고 1시간 정도 돌려봤다. 기계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패션이라고 하면 모양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익숙하지 못한 촌스러운 솜씨로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무엇이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에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깎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문지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